

강릉단오제 기록화 방안에 대한 연구

권 소 현*, 김 의 한**

1. 머리말
2. 강릉단오제의 구성내용 분석
 - 1) 개관
 - 2) 의식
 - 3) 전승
3. 강릉단오제 기록화 현황분석
 - 1)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기록화 사업
 - 2) 강릉단오제의 기록화 사업
4. 강릉단오제 기록화 방안
 - 1) 기록화 대상
 - 2) 기록화 방안
5. 맺음말

[국문초록]

문화자원 기록화에 대한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자원 중에서도 무형 문화재(無形文化財)

* 주저자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 졸업

** 교신저자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는 재현하는 사람이 없거나, 무형문화재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면 더 이상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록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강릉단오제의 기록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형문화재가 생성, 유지되고, 보존되는 생애 전 과정을 고려한 기록화 방안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강릉단오제를 기록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록화 대상을 지정하였으며, 기록화 대상은 강릉단오제의 본자원과 보조자원으로 구분하였다. 강릉단오제의 본자원과 보조자원의 대상에 대해 업무 프로세스를 세워 업무 행위마다 발생하는 기록과 그 기록을 생산하는 주체, 기록이 생산되는 지점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기록화 대상에 대해서는 기록화 방법을 제시하였고, 기록화 주체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무형문화재, 강릉단오제, 기록화, 아카이브즈, 국립문화재연구소, 유네스코, 업무분석

1. 머리말

문화자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높아감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문화자원 아카이빙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지난 2009년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유산 기록화사업의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승례문 화재나 낙산사 동종 소실 등을 접하면서, 문화재 기록화의 중요성과 실측기록의 전국적인 통합관리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실제로 문화재청은 ‘문화

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과 '문화재 기록화 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을 마련하였다.¹⁾

2012년 말 전주에는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이 들어서게 된다. 아·태문화유산전당은 아시아, 태평양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 교류의 거점이 될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보를 수집, 가공, 보급하는 연구, 정보센터의 기능과 함께 무형문화유산 관계자와 일반 대중을 서로 연결하는 네트워킹 센터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²⁾

이처럼 문화자원 아카이빙에 대한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문화자원에 대한 기록화 방안은 개념적이거나 기술적인 방향에 치우쳐 있는 실정이다.

무형문화재는 예술적·역사적 가치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시연과 공연이 끝나면 곧 '휘발'되어 버리는 1회성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의도적으로 기록화 하지 않으면 재현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무형문화재가 공연되는 현장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일이 반드시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자원 중에서도 무형문화재인 강릉단오제를 대상으로 그 특성을 고려한 기록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기록학 분야에서는 연극, 미술, 건축물 등 다양한 문화자원의 기록화 방안이 연구되었다.

정은진(2009)³⁾과 박민구(2008)⁴⁾는 연극이라는 문화예술분야에

1) 문화재청 홈페이지 참고.

<http://www.cha.go.kr/main/KorIndex!korMain.action>

2) 2010 전주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축제 공식 블로그 참고

<http://blog.naver.com/apfest2010?Redirect=Log&logNo=40101613805>

서 연극 행위에 대한 기록화 대상을 분석하였다. 정은진은 연극의 행위과정 분석을 통해 기록화 대상을 분석하였고, 기록화를 위한 범위를 설정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작업이었다고 판단된다. 박민구는 연극 기록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연극공연의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해당 기록물을 설정하였고, 해당 기록물에 대한 관리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정혜린(2008)⁵⁾은 미술기록에 대한 관리방안 논문을 통해 미술관의 업무기능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도출된 기록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제안하였고, 강수나(2007)⁶⁾는 건축문화재의 특성을 파악하고, 건축문화재 관리의 업무절차를 분석하여 업무마다 도출되는 기록을 파악하고 그 기록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기록학에서 제시하는 문화예술분야의 기록화 방안은 우선 그 문화자원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문화자원의 생산에서부터 현존하고, 보존되는 순간까지의 문화적 생애를 분석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문화자원의 생애흐름을 업무의 과정으로 재해석하여 각 단계별로 기록화 대상을 도출하고 기록화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다.

그러나 강릉단오제는 위에서 언급한 문화자원들 보다 좀 더 포괄적인 성격을 띄고있다. 강릉단오제의 행위(의식)와 그 행위를 하는 주체(기능보유자)와의 관계 등에서 보다 복합적인 성격

3) 정은진, 「연극의 기록화 방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 20호, 2009
4) 박민구, 「민간 극단의 연극기록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2008
5) 정혜린, 김익한, 「미술아카이브의 미술기록관리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제 20호, 2009
6) 강수나, 김익한, 「건축문화재 기록의 특성과 관리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제 19호, 2009

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문화자원 기록화방안을 참고하여 보다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특성을 지닌 강릉단오제를 대상으로 문화자원 아카이빙 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논문의 구성은 강릉단오제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알아보고, 강릉단오제의 의식과 전승 등 기록화 대상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한 강릉단오제의 기록화사업 결과물인 기록도서와 기록영화를 분석하여 현행 기록화 사업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강릉단오제의 특성을 살린 강릉단오제의 기록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2. 강릉단오제의 구성내용 분석

1) 개관

강릉단오제는 국가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하여 보존되고 있으며, 그 문화적 독창성과 뛰어난 예술성을 인정받아 2005년 11월 25일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결작'으로 선정되었다. 강릉단오제는 지역 주민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강릉단오제위원회를 통해 행사를 기획·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적 축제로서 행사기간 중 23만 강릉시민을 포함하여 국내외 관람객 등 약 1백만 여명이 참여하고 있다.⁷⁾ 이처럼 강릉단오제는 세계가 인정한 문화 행사이며,

7) 강릉문화원, 『강릉단오제 유네스코 세계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결작 선정백서』, 2006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수백년 동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때문에 강릉단오제의 고유성, 전통성, 역사성, 문화적 가치에 대한 원형보존과 계승유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재발견이 필요하다. '단오'는 일반명사이지만 '강릉단오제'는 분명한 고유명사로, 그 문화적 가치는 인류 공동의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강릉단오제는 이야기(story)가 있는 축제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의의 대상과 기원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제례를 올리는 대상이 대관령산신, 대관령국사성황신, 대관령국사 여성황신으로 신화적 인물로서 비범한 인물, 평범한 인물 등이 고장의 사람이 고장의 설화와 연결되고, 마을의 안녕과 풍농, 풍어, 풍림을 중심으로 주민의 건강과 질병, 안전 등 사회·경제적 번영을 기원한다. 이러한 강릉단오제는 음력 4월부터 5월 초까지 한 달 여에 걸쳐 강릉시를 중심으로 축제형식으로 벌어진다.

천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강릉단오제는 민중의 역사와 삶이 녹아있는 전통축제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특히 강릉단오제는 한국의 대표적 전통신앙인 유교, 무속, 불교, 도교를 정신적 배경으로 하여 다양한 의례와 공연이 있는데 이를 형성하는 음악과 춤, 문학, 연극, 공예 등은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준다.⁸⁾

강릉단오제는 많은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오늘까지 전승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원형을 지켜가야 할 축제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8) 강릉문화원, 앞의 책

2) 의식(儀式)

강릉단오제는 손으로 잡히지 않는 무형의 존재이며, 무형으로 존재하는 행위가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의해 행해졌을 때에만 비로소 그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릉단오제 의식행위의 기록화가 곧 강릉단오제의 기록화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무형의 의식행위를 기록화 하기 위해서는 의식행위의 내용과 의미, 절차, 시기 및 방법 등 의식행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강릉단오제는 1967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면서 제례, 관노가면극, 무당굿 등 3개 분야를 문화재로 지정하였다. 이 세 분야는 오늘날까지도 강릉단오제의 전승과 보존을 위한 핵심축이 되고 있다.⁹⁾

강릉단오제의 지정문화재 행사¹⁰⁾는 한 달여 동안 이어지는 10가지의 의식행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강릉단오제 행사의 대표성을 지니며, 가장 상징적인 의식들이다.

지정문화재 행사의 내용은 이야기(story)가 있고, 순차적이며,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주체(보유자)와 목적이 존재한다. 따라서 의식과정에 대한 단계적인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해 어떤 것들을 기록으로 생산되고, 생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지정문화재 행사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뤄진다.

9) 송지환, 「강릉단오제 영상분석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논문, 2007, p.8.

10) 송지환, 앞 논문

① 신주(神酒) 빚기 (음력 4. 5)

강릉단오제는 음력 4월 5일 신주(神酒) 빚기로 시작된다. 술은 신에게 바치는 가장 중요한 제물로 옛날 관청이었던 칠사당(七事堂)에서 강릉시장과 시민들이 바친 쌀과 누룩으로 정성껏 신주를 담근다. 이 날을 전후로 하여 강릉시민들은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는 단오제 헌미봉정(獻米奉呈)에 참여한다. 헌미는 각종 제례에 쓰일 제주와 떡을 만들어 참여 시민들에게 제공된다.

② 대관령산신제, 국사성황제 (음력 4. 15)

음력 4월 보름 이른 새벽, 열흘 동안 잘 익은 술을 가지고 시민들은 대관령으로 올라간다. 대관령에 올라가 산신제를 지내고 국사성황신을 모셔오는 행사가 벌어진다. 강릉을 기록한 "임영지(臨瀛誌)"¹¹⁾에 의하면 성황신을 모시러 가는 행차는 아주 장관이었다고 한다.

③ 구산서낭제 (대관령국사 성황행차) (음력 4. 15)

산신제와 국사성황제를 마치고 국사성황 행차 일행은 <산유가>를 부르며 대관령 옛길을 걸어서 내려온다. 대관령에서 강릉 시내로 내려오는 길가에 보이는 작은 서낭당이 있는데 그곳이 구산 서낭당이다.

11) 강릉지역에서 1728년(영조 4)에 편찬된 사찬읍지로서 지역의 실정과 현황을 파악하여 행정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띠고 있다. 현재 3권이 전해지고 있으나 1권이 누락되었으며, 지역의 자연 지리적 특징과 인문 사회적 상황을 망라하고 있다. 현재 전승되는 자료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읍지로서 이 지역의 시대적 상황을 담고 있으며, 아울러 후대에 편찬되는 읍지의 모본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④ 학산서낭제 (대관령국사 성황행차) (음력 4. 15)

행차 일행은 시내를 지나 구정면 학산 마을로 이동한다. 강릉단오제의 국사성황신인 범일국사는 학산(鶴山)출신이다. 지금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에는 굴산사지와 더불어 범일의 어머니가 물바가지에 뜬 해를 먹고 아이를 낳았다는 석천(石泉)우물과 아버지 없는 아이라고 버림받았으나 학의 도움으로 살아났다는 학바위 등 범일 탄생의 비범함을 증명해주는 신성한 장소들이 남아있다. 12)

⑤ 봉안제 (대관령 국사여성황사 봉안제) (음력 4. 15)

대관령을 내려온 국사성황 행차 일행은 강릉 시내를 경유하여 홍제동 여성황사로 간다. 두 분의 위패와 신목을 모셔놓고는 유교식으로 제사를 올리고 이어서 무당패가 부정굿, 서낭굿을 한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단오제가 시작되는 5월 3일까지 위패와 신목은 여성황사에 모셔둔다. 국사성황신이 정씨 처녀를 데려다가 혼배한 날이 바로 4월 보름이었다고 하니 이를 기념하여 두 분을 합사하는 의례이다.13)

⑥ 영신제, 영신행차 (음력 5. 3)

음력 5월 3일 저녁에는 제관과 무당들이 홍제동에 위치한 대관령국사여성황사에 올라가 영신제를 지낸다. 그리고는 국사성황신의 위패와 신목을 남대천에 가설된 제단(굿당)으로 모시는 행차가 벌어진다. 굿패들은 여성황 정씨처녀의 생가(경방택)에

12) 황루시, 「강릉단오제 설화연구」, 『구비문학연구』, 제14집, 2002, p.442-450.

13) 황루시, 「공동체문화와 공동체문학 - 놀이 및 의례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19집, 2004, p.202-204.

들러서 잠시 굿 한석을 한 뒤, 남대천 가설 제단으로 성황신을 모셔 간다. 굿당에 위패와 신목을 모셔놓은 뒤 무녀들이 환영의 춤을 추는 것으로 영신 행차는 끝난다.

⑦ 조전제 (음력 5. 4~10)

강릉단오제 기간 중 단오제단에서 아침마다 성황신께 시민의 건강과 안녕, 풍농·풍어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다. 헌관(獻官)으로는 지역의 단체장과 인사들이 제사에 참여한다.

⑧ 단오굿 (음력 5. 4~10)

단오제 기간 내내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는 단오굿은 민중들의 실질적인 종교 의례의 기능을 담당한다. 단오굿은 영동지역의 안녕과 생업의 번영을 기원하면서 무속에서 신앙하는 여러 신들을 차례로 모시는 의례이다. 굿을 참관하는 시민들은 국사성황 신위 앞에서 집안의 평안을 비는 개인 소지를 올리기도 한다.¹⁴⁾

⑨ 강릉관노가면극 (음력 4. 24~5. 10)

관노가면극(官奴假面劇)은 춤과 동작을 위주로 한 국내 유일의 무언(無言)가면극이다. 옛날에는 ‘관노(官奴)’라는 특수한 계층에 의해 연희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민관이 공동으로 치러온 단오제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 내용도 다른 지역과 달리 풍자보다는 공동체의 질서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노가면극은 남녀성황, 여역신, 토지신 등 강릉지역의 가장 보편

14) 황루시, 「공동체문화와 공동체문학 - 놀이 및 의례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19집, 2004, p.192-202.

적인 지역수호신들이 인격화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제의적인 연극이다.¹⁵⁾

⑩ 송신제(送神祭) (음력 5. 7)

제례와 단오굿을 모두 마치고난 후 국사성황신은 대관령으로, 국사여성황신은 홍제동으로 다시 모시는 제례를 올린다. 제례와 굿을 사용한 신목과 지화, 등, 용선, 신위 등의 모든 것을 불에 태우는 소제로서 단오제의 모든 행사는 막을 내린다.

3) 전승(傳承)

무형문화재는 일정한 형체가 없이 전승되어 온 예술(예능)이나 기술(기능)이므로 사람에 의해서 실현될 때 그 모습을 볼 수 있거나 소리를 들을 수 있다.¹⁶⁾ 이는 보유자의 부재가 곧 무형문화재의 부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전수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유자들에 관한 내용은 중요한 기록화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보유자들에 의해 전승되는 과정이 곧 그 무형문화재의 생명선인 동시에 역사가 되기 때문이다.

문화재청 통계에 집계된 강릉단오제의 전수교육관은 강릉단오문화관과 관노가면극 전수교육관 두 곳이다. 강릉단오문화관은 2004년 강릉단오제의 보존전승과 상시 관람을 위해 세워졌으며, 강릉단오제 행사지원과 강릉단오제 보존전승 지원, 강

15) 황루시, 「세계무형유산 강릉단오제」, 『뮤지엄인터네셔널 : 무형문화유산의 의미와 전망』, 한국유네스코위원회, 2004, p.128.

16) 이정호, 「무형문화재의 관리개선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예능분야를 중심으로」, 추계예술대학교 석사논문, 2003, p.8.

릉단오문화관 시설물 관리 등을 담당하며 운영은 강릉시에서 맡고 있다.¹⁷⁾ 관노가면극 전수교육관은 1996년 개관하였고, 지하1층 지상2층 1동의 규모이며 강릉단오문화관과 마찬가지로 관노가면극의 전승과 공연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수교육관에서는 강릉단오제의 전승을 이어가기 위해 보존회가 활동하고 있다. 강릉단오제보존회는 현재 강릉단오제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업무와 강릉단오제 이수자 및 전수자의 예능평가 등을 통한 강릉단오제의 원형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을 도맡아 하고 있다. 또 관노가면극보존회에서는 강릉단오제보존회의 업무와 마찬가지로 전수와 전승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문화재 공연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강릉단오제는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된 이래 지속적인 전승체계를 확립해 왔다. 단오제례와 단오굿, 관노가면극이 그것이다. 이 셋은 오늘날까지 강릉단오제 전승의 핵심적 축을 이루고 있다.¹⁸⁾

강릉단오제 전승현황은 아래와 같다.¹⁹⁾

① 제례

단오제례 부분은 제관과 도가의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강릉단오제의 제례는 유교의례의 규범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다. 따라서 복식과 홀기(笏記)²⁰⁾, 축문을 갖추고 헌관 및 집사들이 산신제부터 송신제까지 총 9번에 걸친 제례의식을 치룬다. 현

17) 강릉시 2009년 예산액 참고. 예산액은 463,588(천원)

18) 강릉문화원, 『강릉단오제 유네스코 세계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결자 선정백서』, 2006, p.69.

19) 강릉단오제 보존회 홈페이지 참고. <http://www.danoje.or.kr/>

20) 홀기 : 혼례나 제례 때에 의식의 순서를 적은 글을 일컬음.

재 강릉단오제 제례에 대한 전수교육조교(3명)와 이수자(4명), 전수자(6명)로 이루어져 있다.

② 단오굿

강릉단오제가 중요무형문화재 제 13호로 국가에서 지정받았을 때 굿부분 기능보유자는 장대연(여, 1885-1973)이었다. 그렇지만 이미 장대연은 노쇠하여 제대로 굿을 할 수가 없었고 곧 사망하였다. 그 후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지는 못했으나 기능보유자 예정자였던 최재분의 무가는 단 한편이 채록되어 있다. 이는 1966년 임동권이 채록한 것으로 “대관령서낭 축원가”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다.

장대연의 뒤를 이어 기능보유자가 된 무녀는 박용녀(1910년생)다. 또, 오랫동안 조교와 기능보유자 후보 자리에 있으면서 강릉단오굿을 이끌어 온 사람은 신석남이다. 신석남(1925~1992)은 삼척 출생이지만 강릉에 이사와 살면서 아들, 딸, 며느리들과 함께 단오굿판을 이어갔다. 그러나 1992년 신석남이 기능보유자로 지정받은 지 3년을 못 넘기고 사망한 후 한동안 예능보유자가 공식상태로 있다가 2000년 7월 신석남의 둘째 며느리 빈순애가 조교에서 예능보유자로 인정 돼 현재까지 굿을 이끌어 오고 있다.

현재 단오굿 전승현황은 예능보유자(1명), 전수교육조교(4명), 이수자(7명), 전수자(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관노가면극

강릉관노가면극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관노들에 의해 연희되던 탈놀이이다. 그런데 갑오경장(1894)때 공식적으로

공사노비법(公私奴婢法)을 혁파함으로써 점차 관노가면극의 전승이 위축되다가 1909년경에는 아예 전승이 중단되고 말았다. 또한 실제로 연희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관노가면극을 복원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임동권 교수가 1966년 김동하(金東夏, 1884년생) · 차형원(車亨元, 1890년생)을 찾아내어 관노가면극을 복원할 수 있었다. 관노가면극의 전승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수교육조교(2명), 이수자(11명), 전수자(9명)로서 구성되어 있다.

무형문화재는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통해 전승되고 표현된다는 점에서 전승주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집단)을 무시할 수 없고, 매 순간의 노력이 쌓여 형성된다는 점에서 기준 시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일정한 공간이 그 무형문화유산을 담는 그릇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한 공간(지역)의 중요성 또한 인정된다.

이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기록은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집단)과 기록의 시점으로서의 '시간', 그리고 그것이 연행되는 현장으로서의 '장소'가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를 떠받치는 세 개의 축이라고 할 수 있다.²¹⁾ 이러한 이유로 강릉단오제의 의식내용과 전승내용에 대한 분석은 무형문화재 기록화를 위한 기본적 내용 분석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21) 임형진, 「무형문화유산의 기록화 사업」, 『뮤지엄인터네셔널 : 무형문화유산의 의미와 전망』, 한국유네스코위원회, 2004, p.152-153.

3. 강릉단오제 기록화 현황분석

1)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기록화 사업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기·예능을 조사·연구하여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6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무형문화재의 기록화 사업은 당초 문화재관리국(現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 담당하였으나, 1995년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²²⁾로 이관되어 진행하고 있다.

일정한 외형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무형문화유산도 어느 정도 정형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형성은 행위를 통해서 시간적으로 전승되고 공간적으로 확산 또는 전파된다.²³⁾ 따라서 행위를 통해 우리는 어느 정도 원형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데, 중요무형문화재의 경우는 바로 해당 기능과 예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한 전승과 실연에 의해서 접근이 가능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현재 무형문화재의 원형보존은 전승을 위한 기·예능 보유자들의 전수교육과 이들의 실연과정을 영상이나 문자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때 전수교육이 직접적인 방법이라면 영상이나 문자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은 간접적인 방법에 해당되며, 국립문화재 연구소의 기록화 사업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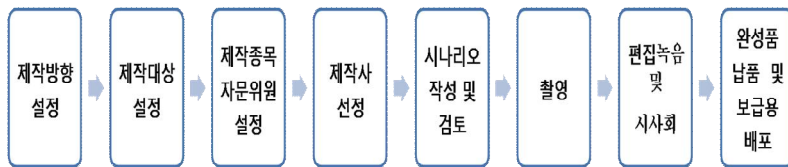
22) 現 무형문화재연구실의 이전 명칭

23) 임형진, 위 논문 p.154.

24) 이채원,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유산 기록물의 제작 동향」, 『무형유산아카

현재 기록화 사업의 결과물은 기록영화, 기록도서가 있다. 기록영화는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한 통·공시적 접근방법을 통한 총체적 이해를 통해 기·예능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하고도 완벽한 사실기록과 각 종목에 관련된 각종 풍속, 행사, 문헌 등을 통한 역사적 재구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제작하고 있다. 아울러 기록영화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기·예능과 결부된 보유자의 삶이나 기·예능의 설명 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 기록도서를 병행 발간하고 있다. 이 책은 사진·도면·그림을 중심으로 기·예능을 해설하고 지정보고서나 관련논문들을 능가하는 상세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림 1〉 기록영화 제작과정



기록화 사업의 결과물은 실연 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원칙으로 진행되며, 기록된 결과물들은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 서비스 제공 및 국·공립 기관 배포를 통해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²⁵⁾

이브의 현황과 발전방향』,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집, 2007, p.163.
 25) 이채원, 위 논문, p.160.

2) 강릉단오제의 기록화 사업

강릉단오제의 기록화사업 결과물에는 기록도서와 기록영화가 있다.

1999년도에 발간된 강릉단오제 기록도서는 강릉단오제 보존회가 매년 단옷날 행하는 단오제의 연희내용을 종합적으로 조사·정리하여 구성되었다. 기록도서에는 강릉단오제의 유래와 관련설화, 준비과정, 제의절차 및 그 성격, 관노가면극, 단오제와 관련된 유적 등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으며 총 179쪽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문은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 제공되고 있다.

전통문화의 연구와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기획된 이 도서는 해설과 사진을 중심으로 강릉단오제의 전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보유단체와 보유자의 기능을 담은 기록영화와 짝을 이루면서, 강릉단오제를 이해하기 위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그리고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무가를 함께 수록하였다.²⁶⁾

강릉단오제 기록도서는 총 6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릉단오제의 기록도서를 참고하여 각 장을 구성하는 내용은 1장에서는 강릉의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머리말과 기록도서의 의미와 가치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2장에서는 단오제의 역사 내용으로 대관령산신(大關嶺山神)과 대관령국사성황신(大關嶺國師城隍神)을 제사하는 강릉단오제가 대관령의 험준한 행로의 안전과 생업의 풍요, 그리고 마을의 안과태평(安過太平)을 기원하는 제의(祭儀)이자 축제가 될 수

26) 강릉단오제 기록도서 머리말 내용 중.

있었던 유래와 그 설화를 설명하고 있다. 3장에서는 강릉단오제를 준비하는 사전 과정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4장에서는 강릉단오제로 지내는 9개의 제(祭)를 소개하고 그 과정을 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5장인 강릉관노가면극의 기원과 전승이 중단되어 복원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가면극이 행해지는 시기를 설명하고 있다. 6장 강릉단오제의 특성에서는 다른 장의 구성과 달리 사진을 첨가하지 않고 글로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부록에서는 강릉단오제의 전승현황과 단오제례와 단오굿, 가면극의 기·예능 보유자의 현황과 그들의 신상정보를 담고 있다. 또 강릉단오제와 관련된 유적 부분에서는 제례를 지내면서 볼 수 있는 각 유적에 대해 그 유적이 있는 장소의 의미와 전설,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릉단오제 기록영화는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내의 영상자료관에서 VOD로 제공되며, 누구나 시청이 가능한 영상물이다. 이 기록영화는 1999년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실에서 주관하여 외부영상물제작업체에 의뢰하여 60분 정도의 분량으로 만든 다큐형식의 영화이며, 보급용 기록영화로서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보존용 기록영화의 내용을 줄여 각색한 것이다. 따라서 내용이 간략하며, 각 장면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성우를 이용하여 내레이션을 삽입하여 영화의 이해를 돕고 있다. 영화의 순서는 실제 강릉단오제의 의식순서이며, 강릉단오제의 역사와 특징, 그리고 신주빚기, 산신제, 성황제, 영신제, 무당굿, 난장, 소제, 송신제 등 강릉단오제의 전 과정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²⁷⁾

그러나 강릉단오제의 기록도서와 기록영화의 내용은 매우 축

27)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내의 영상자료관에서의 강릉단오제 영상 소개글

약적이며, 평면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강릉단오제의 방대한 역사와 내용을 종이나 영상에 옮겨 담는 작업에의 한계점은 인정되지만, 강릉단오제 기록도서의 생산목적이 강릉단오제의 원형보존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해보는다면 내용의 열악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록화 사업으로 제작하는 기록영화와 기록도서는 가치 있는 무형문화재를 영구적으로 보존하자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기록화 사업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100년이 지난 후에도 무형문화재를 지금 모습 그대로 재현(再現)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한 대로 무형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문화 형태 전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지만, 기록은 기록매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한 물리적 제약과 미숙한 정책에 따른 제도적 한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무형문화재의 기록화 작업은 기록 기술 자체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기술의 발달에 맞추어 반복적인 제작업이 동반되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또 영상으로 제작된다고 하지만 그 현장성과 평면적 구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도 문제이다.

또 다른 한계는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더라도, 기록물은 기록 매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원적인 구성의 한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문화재연구소에서 제작한 영상물은 편집과 연출, 기록방식을 토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록자의 문화적 배경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기록자는 영상에 담은 자료의 선정이외에도 영상의 내

용 구성, 각도 및 방향 등을 지정해야 하고, 실제 현장의 모습을 정해진 프레임 안에 넣는 과정 속에서 행하기 때문에 영상 기록 자체는 객관성 한계의 문제를 안고 있다.

기록화 사업의 기초 자료는 지정 당시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지, 전통기법으로 제작되는지, 그 기술이 일정수준 이상인지를 문화재전문위원이 조사한 보고서가 된다. 그러나 조사보고서, 기록영화, 기록도서는 무형문화재 지정이 이뤄지는 음악, 무용, 놀이와 의식, 무예, 공예기술, 음식 분야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어 그 종목만의 특성과 꼭 담겨야 할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기록화 사업은 그동안 나름대로 양식화 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일정한 매뉴얼이 없어 자문위원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로 구성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60년대와 2000년대의 원형보존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4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도 그 구성과 방법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 것도 문제점이다.²⁸⁾

앞서 지적한 한계가 기술적이고 기록화 방법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기록화 프로세스의 부재는 좀 더 근원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록화 방법은 문화재의 모습을 단순히 레코딩(Recording) 하는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무형문화재를 기록화 하기 위해서는 아카이브즈(archives)²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는 무형문화재

28) 위주영, 「무형문화재 기록화와 활용 방안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2006, p.24.

29) 한국기록학회, 『기록학 용어 사전』, 역사비평사, 2008, p.120.
: 아카이브즈란, 개인이나 조직이 사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 중에서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거나 증거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의 생산단계에서부터 무형문화재의 기능이 이루어지는 과정, 보존단계까지의 총체적인 기록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에서 실시하는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록화라는 개념은 그 의미가 매우 협소하고, 방법 또한 단순해 아카이브라고 볼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록화를 위해서는 무형문화재 관련 업무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과 수집된 객체에 대한 관리가 순차적 프로세스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세스는 반드시 문화자원의 종류와 유형별 특징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4. 강릉단오제 기록화 방안

1) 기록화 대상

(1) 강릉단오제의 본자원(本資源)

강릉단오제를 기록화하기 위해서는 강릉단오제의 중심축이 되는 의식과 기·예능 보유자 대한 업무행위를 분석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강릉단오제의 의식(儀式)과 그 의식을 행하는 보유자를 가장 중요한 기록화 대상으로 판단하고 이를 강릉단오제의 본자원이라고 지정하였다.

고 평가선별된 영구 보존 기록, 그리고 이 기록을 전문적으로 보존하는 조직 혹은 이를 위한 시설 및 장소를 말함.

앞의 2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강릉단오제 의식은 음력 4월 5일 신주빚기로 시작하여 송신제까지 10개의 지정문화재 행사가 그 중심이 된다. 이는 강릉단오제 행사의 대표성을 지니며, 가장 상징적인 의식들이다.

의식은 크게 제례와 단오굿, 관노가면극으로 구성되며, 제관이나 무녀, 가면극 연기자 등 실제 기·예능 보유자에 의해 실시된다. 의식행위는 전적으로 강릉단오제 지정무형문화재에 대한 보유자로 인정된 자에 의해서만 그 의식이 공연 될 수 있다.

의식의 행위를 통해서 생산되는 기록은 지정문화재 행위 과정에 대한 사진, 동영상 및 녹취자료, 의식행위에 사용되는 의복 및 각종 제례도구 관련 박물관자료 등이 된다.

이러한 의식은 문화재청장이 인정한 보유자만이 시현할 수 있으며, 의식에 참여한 보유자에 대한 개인이력과 역사에 대한 기록이 발생한다.

아래는 강릉단오제 지정문화재의 의식과 의식에 참여하는 기·예능 보유자에 의해 생산되는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강릉단오제 본자원의 기록화 대상

기록화대상	행위업무	발생기록	업무주체
의식	신주(神酒)빚기	동영상, 사진, 녹음기록, 박물관자료 등	강릉 단오제 위원회
	대관령산신제 및 국사성황제, 구산서낭제, 학산서낭제, 봉안제		
	영신제 및 영신행차		
	조전제, 단오굿		
	강릉관노가면극		
	송신제(送神祭)		
기예능보유 자	보유자 인정	추천서 및 증빙자료,	강원도, 강릉시,

		계획서, 조사보고서, 보유자인정서, 정기조사보고서	문화재 위원회, 문화재청
	제례 보유자 단오굿 보유자 관노가면극 보유자	보유자 개인기록, 구술기록 등	보유자 개인

의식에 관한 기록을 생산하는 주체는 강릉단오제위원회이다. 강릉단오제위원회는 1967년 강릉단오제가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면서 1973년 강릉문화원 내에 있는 강릉단오제 행사팀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가 강릉단오제가 2005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되면서 2006년 3월 강릉단오제위원회로 분리·독립되어 2007년 1월부로 사단법인 강릉단오제위원회로 출범하게 되었다.³⁰⁾

강릉단오제위원회의 주최로 공연되는 강릉단오제 의식행사는 날짜와 시간, 장소별로 기예능 보유자가 의식을 진행하게 되며, 그 의식은 동영상과 사진, 녹음 기록 등 시청각 기록물등으로 기록 될 것이다.

강릉단오제의 의식과 함께 의식을 주관하는 기·예능 보유자의 기록도 기록화 대상이 된다.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그 무형문화재를 전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국가로부터의 인정이 우선시 된다. 이 말은 곧 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위해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국가적 인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절차를 행위업무와 업무주체로 구별할 수 있다.

30) 강릉단오제 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danojefestival.or.kr>

〈표 2〉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프로세스

행위 업무	업무 주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추천	시·도지사 (추천)
↓	
기·예능 조사계획 수립 및 실시	해당분과 문화재위원, 전문위원 3인 이상
↓	
조사보고서 제작	전문가(현지조사)
↓	
지정 및 인정가치 여부 검토	문화재위원회
↓	
보유자 관보예고	문화재청장
↓	
지정 및 인정 여부 심의	문화재위원회
↓	
지정고시	문화재청장
↓	
보유자 인정서 교부	문화재청장

우선 무형문화재의 기·예능 보유자로 인정받기 위해 제 3자에 의한 추천이 있어야 한다. 추천 업무에는 추천서 및 대상자 관련 증빙자료가 있을 것이며, 이 기록물들은 보유자의 신상정보와 보유자의 이력을 담고 있다. 추천된 보유자를 대상으로 기·예능을 조사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여기에는 조사대상과 일정, 조사 내용등이 담긴 계획서가 발생한다. 추천받은 보유자에 대한 조사계획이 완료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

사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재위원들은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회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남겨지며, 이는 보유자 인정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회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하겠다는 결론이 나오면 보유자를 지정하게 되며 보유자 인정서가 발급된다. 인정 후에도 문화재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유자에 대한 인정 후 조사를 실시하며 정기조사보고서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료는 기·예능 보유자를 증빙하는 증거자료로 사용된다.

또,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예능 보유자가 개인적으로 생산하거나 생산되어야 하는 기록물이 있다. 이러한 기록물은 보유자의 개인이력이나 역사에 관한 기록, 자신의 기·예능을 전수하기 위해 남겨 둔 녹취나 구술기록등이 해당된다. 보유자가 남긴 개인기록물은 역사성과 유일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게되며 그 보존가치가 높다.

이처럼 강릉단오제 본자원에 대한 분석은 각 행위단계마다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를 파악할 수 있고, 업무의 결과물로 생산되거나 생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록을 파악할 수 있다. 강릉단오제의 본자원의 기록화 대상은 강릉단오제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핵심적인 기록이 된다.

(2) 강릉단오제의 보조자원

강릉단오제의 보조자원은 강릉단오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되기 위해 필요한 업무에서 발생하는 자원이다. 따라서 보조자원은 강릉단오제 자체를 의미하는 대표성을 띄지는 않지만, 본자원의 업무 앞뒤에서 생산되며 강릉단오제의 가치와 의미를

뒷받침하는 성격을 지닌다.

글자 그대로 강릉단오제의 보조자원은 본자원의 기록화 대상이었던 의식(儀式)과 기·예능 보유자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생산되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은 본 업무를 진행하면서 앞뒤의 맥락상 자연스레 생산되는 기록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본자원과 달리 매년 새로운 내용으로 생산되거나 누적되는 특성을 지닌다.

보조자원의 기록화 대상에는 본자원의 대상이었던 의식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일과 의식 이후의 업무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 보조자원에는 전승기록이나 유관업무 기록이 해당된다. 전승기록은 무형문화재가 일정한 형체가 없이 전승되어 온 예술이나 기능이므로 사람에게 의해서 실현될 때 그 모습을 볼 수 있거나 소리를 들을 수 있기³¹⁾ 때문에 강릉단오제의 맥을 이어가는 중요한 기록화 대상이 된다. 그 외에도 강릉단오제의 일상적인 업무로 발생하는 기록은 아니지만, 역사기록, 유네스코 등재기록, 유관사업관련 기록이 유관업무 기록으로써 기록화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강릉단오제의 보조자원의 기록화 대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강릉단오제 의식 관련 기록화대상

기록화대상	행위업무	발생기록	업무주체
의식 준비	단오제 기획	기획서	강릉시, 강릉단오제 위원회
	행사세부진행계획	행사진행계획서	
	공연시설 준비	용역사업내역서	
	홍보	홍보자료,	

31) 이정호, 「무형문화재의 관리개선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예능분야를 중심으로」, 추계예술대학교 석사논문, 2003, p.8.

		신문기사 등	
	의식 후	결산보고서	
	계속사업	학술자료 및 사업결과보고서	

2006년 『강릉단오제 결산보고』에 따르면, 강릉단오제의 의식(儀式)은 강릉시와 강릉단오제위원회가 혼합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오제와 관련된 기본 계획마련과 단오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기반시설공사 및 주민들과 접촉을 통해 협의를 이끌어야 하는 회의주최 등의 업무는 주로 강릉시에서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반면 단오제 행사 자체를 이끌어가는 주체적인 행위는 강릉단오제위원회가 전적으로 맡고 있다. 이처럼 강릉단오제위원회는 강릉단오제 행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진행을 이끌고 있으며, 행사 진행에 필요한 기반시설 정비부터 지정문화재행사를 위한 준비까지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³²⁾

강릉단오제의 의식과정에 맞추어 발생하는 기록을 분석해 보면, 기획단계에서는 기획서가 생산된다. 기획서는 강릉단오제의 준비과정과 예산내역 등이 적힌 행정서류가 된다.

준비과정에서는 기획서를 바탕으로 행사의 세부진행계획서가 생산될 것이다. 행사의 진행계획서는 행사관련 인물 및 장소, 시간 등 강릉단오제 의식행위 전체에 대한 프로세스를 담은 것이다. 또 강릉단오제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 보유자 리스트와 보유자의 신상정보를 담은 전승자 관련 기록물, 그 외 각종 준비 회의록과 홍보물 등이 포함된다.

의식이 끝난 후에는 사업결과보고서가 작성된다. 사업결과보고서는 강릉단오제의 행사비소요내역 및 진행결과를 소상히 담

32) 2006년 「강릉단오제 결산보고」참고.

은 행정기록물이 될 것이다. 또 의식이 끝난 후 보도자료 및 계 속사업의 결과물 또한 의식 후 발생기록이 된다.

〈표 4〉 강릉단오제 전수 관련 기록화대상

기록화대상	행위업무	발생기록	업무 주체
전수	전수자 관리	전수금지급내역	문화재청
	전수자 임용 및 심사	추천서 및 심사서	문화재청장, 문화재위원회
	전수자 교육	교육 자료집, 전수교육보고서, 시청각교육자료	지정보유자
	가예능 공개행사	행사집, 동영상, 사진, 녹음기록	보존회
	전수교육관운영	운영내역서 및 사업계획서	

기·예능 보유자는 국가에서 무형문화재로 인정받은 이후 전 수업무를 진행하며, 전수업무는 전승을 이어나가기 위한 선결 조건이 된다. 전수를 위해서는 보유자 및 전수자 개인에 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보유자 및 전수자는 매달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이며, 정기조사 및 공연 참가 등 자신 의 이력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이다. 보유자는 전수교육 실시에 따른 보상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월130만원(전승활성화 18종목 : 100만원)³³⁾을 지원받고 의료보호 혜택 등을 제공받는다.

보유자에게 교육을 받는 전수자 또한 임용되기 위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현재 무형문화재 제도는 각 문화재에 대해 해당 분야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33) 2009년 6월 현재기준

실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보유자로 지정하고 있다. 이 보유자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 보유자는 해당 무형문화재가 단절되지 않고 전승되도록 후학에게 교육·전승하는 역할을 한다.³⁴⁾ 우리나라는 무형문화재의 안정적인 체계적인 전승활동을 위해 명예보유자 - 보유자 - 전수교육조교-이수자-전수자(전수장학생)³⁵⁾로 이어지는 일정한 전승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전수과정에서는 전수자 추천서 및 심사서가 발생되며 이는 전수자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주요 자료가 된다. 또 보유자는 임용된 전수자를 대상으로 전수교육을 시행하며, 각 보유자는 자신의 노하우가 담긴 교육 내용을 강의 노트 및 교육 자료집으로 생산한다. 보유자와 전수자는 교육과 훈련을 거쳐 자신의 기·예능을 갈고 닦을 것이며, 이렇게 다듬어진 기·예능은 추후 공개행사를 통해 검증받게 된다. 공개행사는 동영상과 사진, 녹음 등은 시청각 자료로 생산된다.

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전수교육관의 건립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강릉단오제의 전수교육관은 강릉단오문화관과 관노가면극전수 교육관이다.³⁶⁾ 강릉단오문화관은 강릉단오제의 보존 전승과 상시 관람을 위한 공간으로써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강릉단오제 행사지원과 강릉단오문화관 시설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강릉시에서 운영하고 있다.³⁷⁾ 관노가면극 전수교육관은 1996년 개관하였고, 지하1층 지상2층 1동의 규모로 관노가면극의 전승과 공연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34) 임돈희, 로저L. 자벨리, 「무형문화재의 전승실태와 개선방안」, 『비교민속학』, 28집, 2005, p.438.

35) 문화재보호법의 내용을 재정리

36) 무형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2009.09 통계기준

37) 강릉시 2009년 예산액 참고. 예산액은 463,588(천원)

전수교육관에는 강릉단오제의 전승을 위해 각 보존회가 입주해 있는데 강릉단오제보존회와 관노가면극 보존회가 있다. 두 곳 모두 강릉단오제의 전승을 위한 교육 업무와 기·예능 평가 사업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³⁸⁾ 전수교육관에서는 기관의 운영내역서와 교육 및 평가사업 결과진행 보고서 등의 행정기록이 생산된다.

〈표 5〉 강릉단오제 유관자료 관련 기록화대상

기록화 대상	행위업무	발생기록	업무 주체
역사기록	역사수집	古書, 설화집 등	개인 및 도서관, 박물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조사보고서, 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 위원회
유네스코기록	등재신청	신청서, 영상물, 사진 등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관사업기록	콘텐츠사업	사업계약서, 사업결과보고서,	강릉단오제 위원회,
	애니메이션사업	콘텐츠결과물, 애니메이션	강릉과학 산업진흥원

역사물 수집대상으로 강릉단오제 관련 고서(古書)나 설화집 등이 포함되며,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던 당시의 기록 또한 역사 기록의 대상이 된다. 강릉단오제의 역사를 살펴보면, 935년 왕순식이 왕건을 도와 신검을 토벌할 때 대관령에서 체사를 지낸 기록이 남아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단오제의 기록은 1603년 허균선생이 남겼다. 이는 조선조 당시 이속이 주관하는 읍치성황제로서의 강릉단오제의 모습을 거의 그대

38) 강릉단오제보존회 사업내용 참고. <http://www.danoje.or.kr/>

로 가지고 있다.³⁹⁾ 강릉단오제에 대한 학술보고는 일본인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이 1938년에 발간된 민간신앙 총서 “부락제(部落祭)”에서 언급한 바 있다.⁴⁰⁾ 이러한 사료들은 오래된 역사에 근거하여 강릉단오제의 위상과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귀중한 기록이 된다.

또 조사보고서는 무형문화재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록 자료로 평가된다. 조사보고서는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데 필요한 항목을 따라 대상 종목의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그 역사와 내용, 구체적 특성, 보유자의 계보와 이력 등 제반 정보를 포괄하고 있다. '조사보고서'는 이후 국립문화재 연구소에서 제작하는 기록영화와 기록도서의 객관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러한 근거로 '조사보고서'는 무형문화재의 원형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로 여겨진다.

유네스코 기록에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준비하고, 제출하였던 신청서 및 강릉단오제 소개 영상물 및 사진 등의 자료 등이 있을 것이다.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10분과 2시간분량의 동영상물, 사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유네스코의 지침에 맞추어 작성하고 동영상물은 심사위원이 보는 10분짜리와 전문가그룹이 보는 2시간짜리로 나뉜다. 전문가그룹은 2시간짜리 영상물과 신청서를 보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심사위원에 제출하며, 심사위원은 검토의견과 10분짜리 영상물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⁴¹⁾ 이렇게 제출된 자료들은 강

39) 황루시, 「강릉단오제 세계문화유산 등록과정과 의의」, 『경산문화연구』, 제 10집, 2006, p.19.

40) 임동권, 「강릉단오제의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지정과정에 대한 회고」, 『강릉단오제 유네스코 세계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정백서』, 2006, p.99.

41) 황루시, 「강릉단오제 세계문화유산 등록과정과 의의」, 『경산문화연구』,

릉단오제가 유네스코에 2005년 등재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역사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증빙자료로서의 기록화가 필수적이다.

또 강릉단오제 유관사업으로 콘텐츠사업과 애니메이션 사업 등이 존재한다. 사업의 진행기록과 결과물은 강릉단오제가 현재와 과거의 모습뿐만 아니라 시대를 반영하는 모습의 기록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업은 매년 그 종류와 사업내용이 변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의 내용을 검토하고 선별을 통해 기록화 대상으로 선정하는 결정이 요구된다.

2) 기록화 방안

지금까지 강릉단오제의 기록화 대상의 범주를 분석해보았다. 각 업무단계에서 생산되는 기록들은 생산 매체의 특성에 따라 생산과 수집의 방법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며, 강릉단오제의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록을 유형별로 구분할 수 있다.

강릉단오제의 행정업무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획서, 회의록, 보고서 등은 일반종이문서로서 문서기록으로 범주화가 가능하다. 또 강릉단오제 의식행위를 영상으로 기록한 동영상이나, 유네스코 제출용 홍보영상으로 제작한 동영상기록과 사진자료 및 홍보용 팸플렛, 포스터 등 이미지기록이 존재한다. 그 외에도 학술사업으로 발간되는 논문집이나, 역사기록으로 수집되는 각종 설화집과 고서(古書)는 도서류에 속하고, 기·예능 보유자가 전수하기 위해 만든 교육용 자료나 개인의 기·예능 노하우 및 자신의 일대를 기록한 일기 등 개인기록이 존재한다. 또 의식

제 10집, p.18.

행위에 사용되는 도구나 재료, 보유자의 의복 등은 실물기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서 기록은 생산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별로 생산한 기관의 생산현황을 파악하여 수집하도록 한다. 행정기록의 경우에는 이관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관 받도록 한다. 수집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생산시기가 오래된 기록물의 경우 사본을 만들고,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동영상 기록은 강릉단오제의 의식행위를 촬영한 영상물로서 영구보존해야 한다. 강릉단오제의 의식행위 절차를 온전히 촬영하도록 하고 촬영과 제작, 편집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영상물은 단오제가 진행되는 해마다 촬영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촬영주기를 정해 시기별로 재촬영을 하여 시대상과 기술적 발전을 반영토록 한다. 기존에 촬영되었던 원본 또한 지속적인 보존이 필요하며, 구 매체에 기록된 영상물의 경우 영상매체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하도록 한다.

이미지 기록은 강릉단오제 관련 사진류나 팸플렛, 리플렛, 포스터 등 이미지가 있는 기록물이다. 이미지 기록물은 생산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생산자로부터 인수 받은 이미지에 대해서는 디지털화 작업을 실시한다. 이미지 기록물 또한 보존도를 높일 수 있는 수준의 디지털화 기준을 마련한다. 이미지 기록은 추후 이용자들의 관심과 활용이 다른 유형의 기록에 비해 높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통한 공개를 가능케 해야 한다.

도서류 기록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서적에는 오래된 고서나 설화집도 존재한다. 오래된 고서(古書)의 경우에는 보존성을 위해 이용자의 접근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한다. 대신에 디지털화

하여 E-BOOK으로 제작하여 이용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서(古書)류 외에 새롭게 제작되어 인수받거나 수집되는 도서류에 대해서도 지정한 분량의 복본을 소유하도록 하며, 가능한 E-BOOK으로 제작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한다.

개인기록은 업무의 결과물로 나온 기록이 아닌, 기·예능 보유자가 직접 생산한 기록물로서 전적으로 개인 보유자로부터 기증받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인기록물에 대한 수집범위를 지정하고, 기증에 대한 보유자의 거부 의사가 있을 상황을 고려하여 기증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개인기록은 개인 보호 내용이나 보유자의 비밀여부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개인기록물 또한 수집 이후 곧 디지털화 작업을 거치도록 한다.

실물기록은 형태가 있는 박물로, 의식에 사용되었던 실물에 대해 범주를 정해 수집하도록 한다. 기·예능 보유자의 개인적인 소품의 경우에는 개인기록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동의를 얻은 후 기증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실물기록은 수집 후 3D형식의 디지털화 작업을 거치도록 하며, 작업 끝나면 보존처리를 한 후 형태를 유지하여 영구보존하도록 한다.

〈표 6〉 강릉단오제 기록화 대상과 기록화 방법

기록화 대상	발생기록	업무주체	기록화 방법
의식	동영상, 사진, 박물자료 등	강릉단오제 위원회	이관 후 디지털화
기·예능 보유자	추천서, 증빙자료, 조사보고서, 보유자인정서	강원도, 강릉시,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청	이관

	등 개인기록, 구술기록 등	보유자 개인	인수 및 기증
의식 준비	행사진행계획서 용역사업내역서 학술자료 등	강릉시, 강릉단오제위원회	이관
전수	전수금 내역서	문화재청	보관
	추천서 및 심사서	문화재청장, 문화재위원회	보관
	교육자료집, 전수교육보고서	지정보유자	인수 및 기증
	행사집, 영상물, 운영내역서 등	보존회	인수 후 디지털화
역사 기록	古書, 설화집 등	개인 및 도서관, 박물관	인수 및 기증
	조사보고서, 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위원회	이관
유네스코 기록	신청서, 영상물, 사진 등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이관
유관사업 기록	사업계약서, 사업결과보고서, 콘텐츠결과물	강릉단오제위원회 강릉과학산업진흥 원	이관

기록화를 위한 주요한 방법으로는 크게 이관, 인수, 기증, 제작, 구입 등의 방법을 제안할 수 있고, 기록화에 있어 후속작업으로 배치될 수 있는 디지털화와 편집의 작업은 인수, 기증, 제작, 구입의 기능과 맞물려 진행되어야 한다.⁴²⁾

강릉단오제 기록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작업은 기록이 생산

42) 정은진, 「연극의 기록화 방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20호, 2009, p.14.

되도록 만드는 것과 기록을 수집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되는 기록은 이관 혹은 인수받고, 생산되지 않는 기록은 생산을 독려하여 수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모아진 기록들이 훗날 강릉단오제 모습을 재현하기에 얼마나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작업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형문화재 관련 기록은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개인기증 기록이 존재한다. 기·예능 보유자가 생산한 기록으로서, 자신의 개인 수기나 수첩 등 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의 정보가 담긴 정보들이 그 대상이다. 이러한 정보는 개인의 동의가 없으면 쉽게 기증받기 어렵고, 또 개인소장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이기 때문에 기증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예능 보유자가 남긴 개인기록일수록 무형문화재의 시대적 변화가 반영되고, 무형문화재가 갖고 있는 내면의 가치까지 좀 더 세밀하게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정리한 강릉단오제 기록화 대상은 서로 다른 조직과 개인들의 업무가 복합적으로 혼합되어 형성된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강릉단오제의 겉모습은 하나의 축제이지만, 그 업무는 세분화 되어있기 때문에 강릉단오제를 기록화하기 위해서는 기록화 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기록물의 형태도 복합적이고, 생산되는 기관 또한 서로 다른 상황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기록들을 어떻게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에 따라 기록화의 목적과 목표를 정확히 하고, 기록화해야 하는 기관의 사명을 고려하여 기록화의 범주를 계획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생산기관과 출처가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들을 관리해야 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기록의 관리주체가 정해진다는 것은 곧, 기록 생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명확해질 수 있다는 전제가 된다.

강릉단오제를 기록화하기 위해서는 강릉단오제의 어디까지를 기록화 할 지 범위를 설정하고 누가 그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원형'에 가깝고, 시간이 지난 후에라도 '재현'이 가능할지 고민해야 한다.

현재 강릉단오제의 업무 구조는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에서부터 강원도, 강릉시청 등에 걸쳐있을 뿐 아니라, 사단법인인 강릉단오제위원회와 각 보존회 이외에도 개개인 및 소수의 문화재 관련 단체들과 복잡하게 얽혀있다.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하며, 유네스코 지정관련 업무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릉단오제 관련하여 생산되는 기록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무형문화재의 영구적인 보호와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기록물의 관리를 해야 하며, 산재되어 있는 무형문화재 관련 기록들을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위의 상황을 근거로 이 논문에서는 강릉단오제의 기록화 주체를 정할 필요성을 느끼며, 그 대상은 문화재청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문화재청은 국가의 문화재를 지정 및 등록하는 업무부터 문화재 관리와 재정을 지원하는 등 문화재의 실질적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의 수는 114개, 시·도 지역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는 387개에 이른다.⁴³⁾ 이처럼 국가에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무형문화재의 숫자만 5백여 개에 이르는 것이다. 게다가 무형문화재는 국제사회의 관심

43) 문화재청, 주요통계, 2009.09

이 높고, 보존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쉽게 소멸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특성을 지녔다. 지금과 같은 형식대로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방식은 아카이브에 중점을 두지 않아 그 기능이 소홀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문화재 기록화를 해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아카이빙 할 수 있는 주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문화재 아카이브즈는 업무 과정, 다중 출처, 기록, 이용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기록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방안이라고 판단된다.⁴⁴⁾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문화자원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써 문화자원의 기록을 최종적으로 이관받아 관리하는 전문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무형문화재 관련 기록을 생산하고, 이관받아 기록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정리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연구자나 일반인들이 자료로 열람 가능토록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록 매체를 변환하거나 폐기 또는 다른 기관에 양도하는 등의 처분을 내리는 기능을 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의 유형별로 특성을 고려한 수집전략을 마련하고 무형문화재 기록의 생산에서부터 수집·이관 후 관리되는 모든 과정에 대한 업무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무형문화재가 유지되어 가는 각 과정마다 생산되는 기록과 생산되어야 하는 기록을 살피고,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44) 강수나, 「건축문화재 기록의 특성과 관리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제19호, 2009, p.47.

5. 맺음말

1999년 공공기관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기록학 분야에서는 공공분야의 행정기록물이나 매뉴스크립트⁴⁵⁾의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기록학에서는 문화자원 분야의 아카이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다. 문화자원에 대한 기록화는 문화자원에 대한 관리 소홀과 기록화의 부재로 문화재가 갖고 있는 고유한 속성과 가치를 점차 잃어가는 위험성에서 출발하였으며, 획일적인 문서기록의 기록관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기록 관리 시도로 그 연구의 폭을 넓혔다는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 또한 문화자원의 특성을 살린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아카이빙 필요성에 동감하여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제안한 강릉단오제의 기록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무형문화재의 유형에 따른 기록화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기관과 문화재관련 전문가,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기록관리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 간의 의견 공유와 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남겨지게 되는 기록물이 곧, 문화자원 자체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물은 문화자원의 생성부터 유지, 추후 관리되는 전 과정에 대한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할

45) 한국기록학회, 『기록학 용어 사전』, 역사비평사, 2008, p.95.

: 매뉴스크립트란, 손으로 쓰였으며, 역사적이거나 문학적 가치를 지닌 기록 정보. 또는 어떤 기준이나 의도에 따라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모은 인위적인 기록 집합체. 생산 출처별로 이관되거나 입수되는 보존기록(archives)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것이다. 이는 문화자원의 삶 전체에 대한 조망이며, 후대 재현에 필요한 필수적 기록으로 역사적 증빙의 자료가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문화자원을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의 이용자들의 이용을 도울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Documentation Method of Gangneung Danoje

Kwon, So Hyun · Kim, Ik Han

Intangible Culture Heritage can show its face only by representation of people in no form. Accordingly, if there are not people who represent Intangible Culture Heritage or records which is about Intangible Culture Heritage, we can see its appearance any more. Now on, Intangible Culture Heritage preservation policy of Korea is incomplete, so polices that Intangible Culture Heritage keeps on its values permanently, are essential.

This study starting from these critical mind, suggests documentation method of Gangneung Danoje. This study designs documentation plans of Intangible Culture Heritage considering whole its whole lifecycle that produced, keened, used, preserved. To document the Gangneung Danoje, the target of documentation is selected and divided as ceremony, transmit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related data. the ceremony and transmit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of Gangneung Danoje are recognized by building the business process, so records that produces whenever business act produce, subjects who produce the records, the spot where records are produced. A related data is not the target of documentation produced as continual

business, but something to worthy of keeping as records is selected. Through investigation of the ceremony, transmit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related data, this study selects objects to documentation and suggests method of documentation and subjects who document records.

Key words : Intangible Culture Heritage, Gangneung Danoje, Documentaion, Archives,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UNESCO, Business process